

농림축산식품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2월 20일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APHIS)는 현지시간 12월 18일(한국시간 12월 19일) 오레건주에 소재한 1개 농장(빨닭과 닭 100여 마리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인되어 국제기구(OIE)에 통보하였으며, 해당농장을 격리 조치하고, 살처분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 예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 이내에 도축 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되지 않은 제품임.)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4년 전 세계 HPAI 발생국 현황 (총 4개 대륙, 18개국)

아시아(우리나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라오스, 북한, 일본, 대만), 유럽(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북미(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리비아)

덧붙여,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 대비 17.5% 가량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재고량도 9천 톤으로 많은 상황이므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닭고기 수입선이 브라질,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필요시 2개월 내에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하여 국내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년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검역지원협의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2014년 11월 28일 검역본부에서 우리나라 주요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14년도 하반기「수

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지원협의회에서는 3개 분과 위원 및 검역본부 소속 수출 담당자 등 2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검역본부는 그 간 주요 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성과 및 국가별·품목별 검역협상 동향 등을 설명하였으며 민·관 합동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축산물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3개 분과를 5개 분과(쇠고기·애완동물사료)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5년 상반기에는 분과위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3개 분과 : 유가공품, 삼계탕·가금육, 돼지고기 등)

검역본부는 앞으로 동 협의회를 통해 관련 협회·단체·업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적극 파악하고 관련정보 공유 및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축산물 수출 1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제9회 소비자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12월

10일 서울식약청(서울 목동 소재)에서 '제9회 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2년간 범정부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 활동을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공유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포럼 주제는 '불량식품 근절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이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활동 성과와 방향,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활동 성과와 방향'은 윤형주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기획팀장이 발표했다.

불량식품 근절 활동성과는 ▲위생·안전 취약분야 집중점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 최대 10배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적용 ▲불량식품 근절 분위기 조성 등이다.

향후 방향은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추진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소통·참여 확대 등이다.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대한 고찰'은 중앙대 하상도 교수가 발표했다. 현재까지 이행된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세부전략별 중요도 및 추진성과,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의 불량식품 근절의식 수준 변화 등을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의 관련 전문가 관점에서 평가하고 제언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불량식품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안전 먹거리 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

농촌진흥청

‘닭·오리농장 관리 프로그램’
2015년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축산농장종합지원시스템 ‘한우리’의 닭·오리 관리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2015년 1월부터 농가에 제공한다.

‘한우리’는 가축 사육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편리하게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단계로 2014년 1월부터 한우·비육우 농장을 대상으로 보급해 왔으며, 2단계로 2015년 1월부터 닭과 오리 농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로 개발한 ‘한우리 가금농장 관리 프로그램’은 육계1)와 산란계2), 오리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HACCP 기록 관리, 사육 관리, 영양 관리, 일정관리 등 총 4분야 25개 관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HACCP3) 기록 관리는 농장 관리 일지와 해충, 소독,약품, 출하 등 HACCP 인증의 전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사육 관리는 입추4) 정보, 산란 정보를 관리해주며, 육성률과 평균 체중, 사료급이량, 사료요구율, 생산지수, 산란율, 폐사율, 산란양 등 생산성을 분석해 제공한다. 경영 관리는 농가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관리해 마리 당 수익을 파악할 수 있다. 일정 관리는 사료 교체 시기와 백신 접종 등 시기별로 농가에서 놓치기 쉬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육계와 오리농가의 95% 이상은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계열업체가 병아리·사료 등 생산 자재를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축

사와 노동력을 이용해 닭과 오리를 키우면 미리 정한 사육 보수를 받는다. 계열화 사업자 간 사육 일지의 기록 항목은 비슷하지만 양식이 달라 도중에 협력 업체를 바꾸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번에 개발한 ‘한우리 가금농장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표준양식에 따라 사육 일지를 작성하므로 이 같은 불편은 줄게 된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리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해 한국육계협회, 오리협회, 계열사와 협의회를 열고 계열사별 각기 다른 사육 일지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온도·습도에 따른 체중 변화, 산란능력 등 생산성 분석과 함께 표준 자료가 제시돼 사육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을 받을 때에도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농장단계의 HACCP 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순 기획조정과장은 “한우에 이어 가금류까지 국내산 축산물의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급할 수 있게 돼 농가 편의는 물론 안전성을 통한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성이나 질병으로 고민하는 농가의 현장 상담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월부터 ‘한우리(<http://hanwoori.nias.go.kr>)’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1) 주로 고기를 얻으려고 살지게 기르는 닭.
- 2)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
- 3)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안전관리인증기준
- 4) 닭을 기르기 위해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들여오는 것.

[문의]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과장 최동순, 김주란
031-290-1740, 1746

농촌진흥청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 공모전’ 8점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닭·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8점을 선정했다. 제품 개발 61건, 품질 개선 63건, 조리법 19건 등 모두 143개의 아이디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를 늘리고 축산연구개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김현진 씨의 <닭 가슴살, 오리 가슴살을 이용한 ‘헬스바’, ‘다이어트바’>가 뽑혔다. 고단백질 식품인 가슴살과 열량이 낮은 우뭇가사리를 이용해 운동이나 체중 조절 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막대 형태로 만든 과자를 제안했다.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 늘어나는 건강식품 수요를 충족해 수입 단백질 보충식품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우수상은 2점이다. 임나래 씨는 <더하는 맛, 빼먹는 재미 ‘치킨 온 어 스틱(chicken on a stick)’>을 제안했다. 버섯과 양파, 떡 등 여러 재료를 닭꼬치구이 묶음으로 구성해 소비자가 덜 좋아하는 부위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이끈다는 의견이다. 이민재 씨는 진공 용기 안에 소금과 후추, 허브를 곁들여 조리하는 <‘Sous Vide Chicken Ham(수 비드 치킨 햄)’의 제품화>를 제안했다. 수 비드는 진공상태로 저온(40℃~50℃)의 물속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프랑스 조리법이다.

장려상은 ‘반 마리 포장 판매’, ‘닭·오리 특징물과 홍보 노래 제작’, ‘지역 식재료 판매’, ‘이력 관리 제도와 응용프로그램 개발’, ‘중소육가공업체와 소규모 농장 홍보’ 등 5점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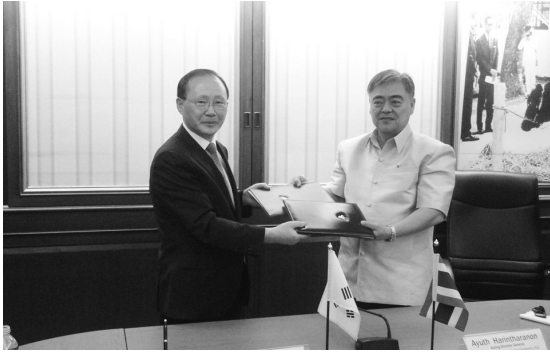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송용섭 기술지원과장은 “수상작들을 농협중앙회, 양계협회, 계육협회, 오리협회 등 축산관련 단체와 공유해 소비를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장 송용섭, 기술지원과 서동균
031-290-1760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태국 국립축산국과 MOU 체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규담, 이하 인증원)은 12월 9일(화) 태국 국립축산국(Depart-



ment of Livestock Development)에서 HACCP과 축산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HACCP 및 동물성 식품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에게 지식, 정보, 아이디어, 기술 및 기법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인증원과 태국 국립축산국은 각 기관별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HACCP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지원하고, 각종 HACCP 기술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양 기관의 연구자들의 상호방문과 장기적인 교류를 위한 새로운 공동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 및 전문지식의 교환으로 우리나라 HACCP 운영체계의 해외 기술전수 및 전파를 통한 국내 HACCP 기준의 국제화로 축산물 위생안전 강국으로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희망하며, 향후 태국 국립축산국(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과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2014년
축산물 유통마진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이 시행한 『2014년도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 감소하고, 소비자가격 보다 농가수취가격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개요(축산물품질평가원)

- 조사기간 및 지역 : 2014. 7. 1 ~ 8.18 / 전국
- 조사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조사범위 : 유통실태 전반(유통주체, 경로별 유통비용, 유통량 흐름, 거래형태, 유통가격 등)
- 조사건수 : 축산업 유통 종사업체 중 20,971건(현장 조사 1,886건)
- * 식육포장처리업체, 도축업체, 도매시장·공판장, 식육판매업체, 가축거래상인, 식용란수집판매업체, 계열화업체, 산란계 농장, 운송업체, 전통시장 등

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의 '14년 7월 기준 유통비용률은 44.7%로 전년 동월(49.8%) 대비 5.1%p가 줄었으며,

(* 유통비용 : 최종가격에서 농가수취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직접비(수송비, 포장비, 상하차비 등), 간접비(임대료, 인건비, 이자 등), 유통이윤으로 구성)

이 기간 주요 축산물의 가격은 대부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소비자가격 보다 농가수취가격의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가 유통 상인 보다는 농가에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의 상세내용은 축산유통종합정보(www.ekapepia.com)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쇠고기 3.6%P, 닭고기 9.7%P, 계란 5.2%P가 각각 감소하였고, 다만 돼지고기는 수요증가에 따른 원료육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폭(1.4%P) 상승하였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경우 도축 및 부위별 정형 단계(생축→지육→부분육→정육)를 거쳐야 하므로 총 유통비용이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 예를 들어 미국의 유통비용률은 쇠고기 49.7%, 돼지고기 69.8%로 우리나라(쇠고기 41.8%, 돼지고기 45.6%) 보다 높은 수준임)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소비로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의 규모화 및 유통경로 다원화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① 축산물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구축, ② 산지-소비자 가격연동형 소매점 확대, ③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등 기존대책을 보완·강화하고 새로운 과제 등을 발굴·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

- 축산물 패커 육성 등 도축장의 역량 강화
- 조합에 전속 출하하는 선도조합원(1만호) 육성을 통해 협동조합 계열화 체계 강화
- 도축·가공·판매를 일관 처리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패커의 판매비중을 높여 유통비용 절감
- * 음성공판장 증설 및 부경공판장 현대화 등 기반 시설 구축 지원

- * 협동조합형 패커를 통해 유통시 마리당 소 8.7%, 돼지 6.0%의 유통비용 절감 추정
- 축산물 패커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거점도축장을 확대(현재 13개소 → '17년 이후 20개소)하고, 규모는 작지만 역량 있는 지역특화형 도축장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 혈액자원화시설 신규 지원('15년 계획수립),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15~'24년까지 10년간, 20%)를 통한 도축관련 제경비 절감
- 직거래·사이버 거래 등 유통경로 다원화로 유통 효율 제고
- 협동조합형 패커의 산지조달 비중을 현재 3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
- 산지-소비자 가격연동형 직거래 판매망*을 확대하고, 영농법인 등에 대하여는 한우 직거래활성화사업을** 신규 지원 * 정육점/정육식당 : ('13) 537/364 → ('14) 700/467 → ('17) 1,000/600 ** '15~'22년까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160개소 설치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aT) 및 안심 e-고기장터(농협)를 통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부분육 거래 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
-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내실화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조사횟수 및 표본확대 등 조사방법의 개선을 통해 축산물 유통실태조사의 정확도 제고 - 조사횟수(연 1회→ 2회), 표본수(1,400건 → 3,000건) 등
-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소비 촉진 홍보 등 지속 실시
- 국산 축산물(저지방 부위 등)을 활용한 식육가공산업 육성 추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13.10 신설) 조기 정착을 위하여 표준매뉴얼 개발('15) 및 경영 컨설팅('15~'19년 총 500개소) 신규 지원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식육가공기사'자격 신설('15)
-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및 식육(식용부산물 포함) 가공분야 연구개발 확대(연간 45억원 수준)
-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식육가공품 소비홍보 지속추진(연간 8억원 수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농업 연계 '상생협력 직거래장터' 개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aT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농축협과 함께 '상생협력 직거래장터' 행사를 12월 8일 aT본사(나주시 문화로 227) 1층 로비에서 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나홀로 이주 직원들이 많아짐으로써 소량묶음 농산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나주혁신도시가 쇼핑, 먹거리 구매처 등 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일일 직거래장터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날 장터는 일로농협의 로컬푸드직매장, 완도강진축협이 참여하여 전남지역의 로컬 농식품 및 축산물 등을 판매하였으며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직장인임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활용하였다. 방문자는 aT 임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이전기관 및

지역주민 등도 함께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aT는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어 aT지원사업과 연계한 직거래 사업추진으로 영세 소농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T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지역농업의 상생협력을 모색하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정례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2014년 농협로컬푸드직매장 50개소 개장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12월 15일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로컬푸드직매장 50개소 개장 기념식'을 가졌다.

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2012년 4월 문을 연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첫 출발로 2013년까지 20개소가 개장했다. 올해는 지난 10월 16일 경기 고양시의 벽제농협이 40호점을 개장하면서 당초 목표인 40개소를 돌파했고 11월말까지 모두 46개소가 문을 열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있다.

또한, 이번 12월에 울산 삼남농협과 서귀포 안덕농협, 아산 인주농협, 진천농협이 새롭게 개장해

농협로컬푸드직매장 50개소 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

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을 포장하고 가격을 정하여 매대에 진열한 후 판매에 재고 관리까지 하는 농업인 매장이다. 신선농산물은 '1일 유통' 원칙을 지키고 그날 팔고 남은 재고는 농업인 스스로 회수하는 등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특히 유통비용을 최소화해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값에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마땅히 농산물 팔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 주면서 소득을 높여주고 있어 한·중 FTA 등

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와 함께 생산 농장을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여성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모습을 갖추면서 6차 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소비자를 잇는 문화의 중심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상징적인 모델인 농협로컬푸드직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6년까지 모두 100개소를 개장하겠다”고 말했다.

